

BOK 이슈노트

2024년 12월 3일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소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
Tel. 02-759-4138, E-mail. jaeho.lee@bok.or.kr

유지원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조사역
Tel. 02-759-4172, E-mail. yooji@bok.or.kr

- 결혼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등의 변화로 국내에서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팬데믹 이후 그 흐름이 가팔라지면서 2023년 기준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이다. 이로 인해 1인 가구의 경제적 행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졌으며 실제로 1인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지난 1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 2023년 기준 전체 소비지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징과 최근 이들 가구의 빠른 확산이 우리 소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 우선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인 가구^{가구원수 효과 조정}에 비해 ①소득이 낮고, ②자산규모가 작으며 ③단순·임시직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 형편이 취약하였다. 이를 여타 선진국의 1인 가구 상황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더 큰 반면 사회보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게다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인 가구와의 소득·자산규모나 임시·일용직 비중에서 그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팬데믹 이후 1인 가구의 소비성향은 오히려 크게 하락함에 따라 국내 소비회복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생활비 부담이 크고, 가구원 간 리스크 부담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특히 청년층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컸으며 고령층은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데믹을 겪으며 ①생활물가의 빠른 상승, ②위기에 따른 소득 감소가 전체 가구, 특히 1인 가구의 소비를 제약한 가운데, ③월세가격 상승, ④임시·일용직 중심 고용 충격이 청년층과 고령층 1인 가구의 소비에 각각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1인 가구의 소비성향이 뚜렷하게 떨어졌으며, 이는 빠르게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비중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소비회복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 1인 가구 소비성향 약화의 주요 원인을 고려할 때 내수기반을 튼튼히 하려면 이들 가구의 주거·소득·고용 안정이 긴요한데, 정책 대응 측면에서는 연령대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높은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이 절실하며, 고령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열악한 소득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빈곤 대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저출생 대책과의 상충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국 등 해외사례처럼 전체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정책 틀 안에서 1인 가구 문제에 균형감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후속 연구로 「1인 가구 확산의 주택시장 영향 평가 및 시사점(가제)」이 예정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지호 조사국장님, 이관교 거시전망부장님, 김민식 국제경제부장님, 김대용 조사총괄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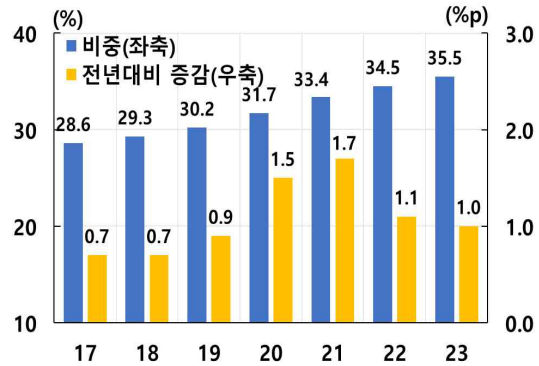
I. 검토 배경

1.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근래 우리 경제의 낮은 성장세는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순환 요인 외에도 각종 구조적 문제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선행연구(조태형, 2023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40년경에 0%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여건을 점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 여러 구조적 문제 중에서도 특히 **팬데믹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간 결혼에 대한 인식, 인구구조 등의 변화로 자발적·비자발적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는데 2021년 이후부터는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¹⁾ 이로 인해 1인 가구의 경제적 행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졌으며, 실제로 1인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지난 1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 2023년 기준 전체 소비지출의 약 1/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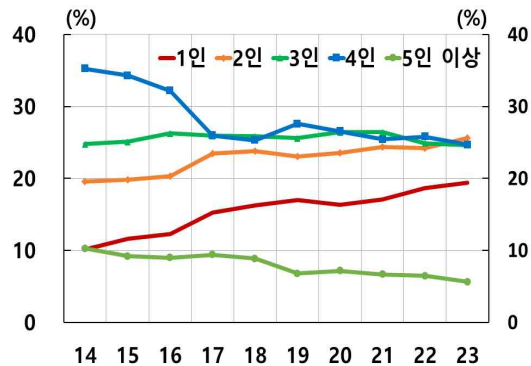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징과 최근 이들 가구의 빠른 확산이 우리 경제, 특히 소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1인 가구 비중 추이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 가구원수별 소비지출 비중



자료: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추정

II. 1인 가구의 특징

① 1인 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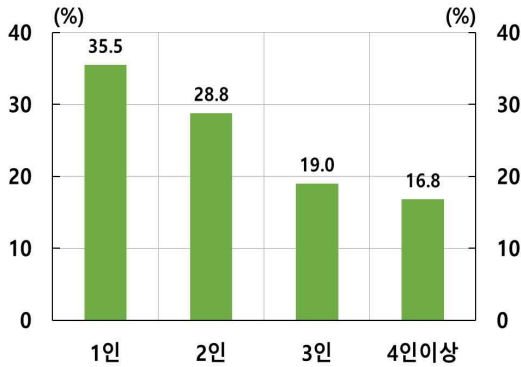
3.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5.5%로 가구원수 기준 가장 높으며, 증가 속도도 팬데믹 이후 매우 빠른 모습이 다.**²⁾ 통계청의 2022년 장래가구추계에서는 2030년 1인 가구 비중을 35.6%로 전망하였으나, 지난해 이미 동 수준에 도달할 만큼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금년 추계에서는

1) “1인가구를 형성하는 원인은 주로 자발적 1인가구와 비자발적 1인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 1인가구는 가족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하여 구성된 1인가구로 새로운 소비패턴을 주도하며 기업의 주요 타깃층이 되고 있다. 반면 비자발적 1인가구는 이혼, 별거, 사별, 기러기 가족 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형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비자발적 1인가구는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성, 미래에 대한 비관성을 보이며, 건강 악화나 문제성 음주,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 소통의 결여 등과 같은 정서적 결핍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박민진·김성아, 2022)

2) 통계청 가구추계를 이용해 살펴보면 1인 가구가 2인 가구 비중을 넘어서 가장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되는 시점은 2011년 이후부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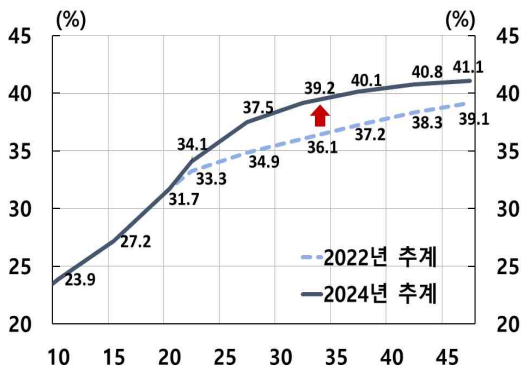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전망치를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1인 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서울 등 수도권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림 3>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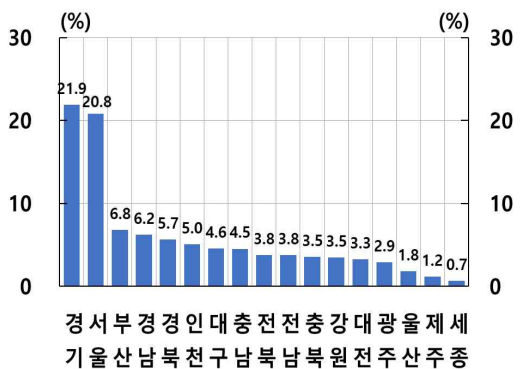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23년)

<그림 4> 1인 가구 비중 전망



자료: 장래가구추계(2022, 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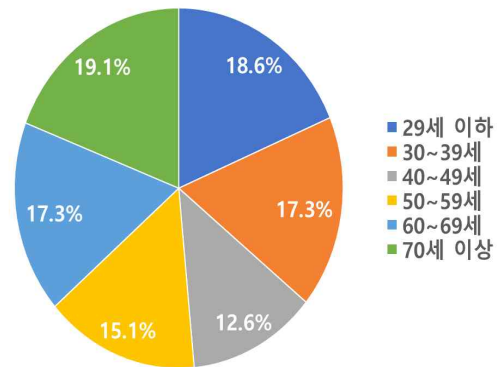
<그림 5> 1인 가구 지역별 분포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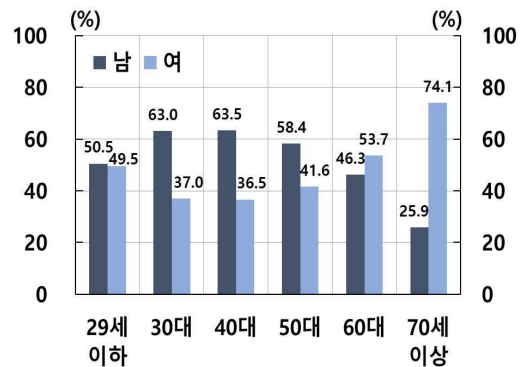
4. 1인 가구는 주로 청년·고령층의 비중이 높다. 성별로 보면 청년층에서는 남성, 고령층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 연령별 1인 가구수의 증가율은 60대 이상, 20~30대 순으로 높았는데, 설문 결과 20~30대 청년층은 취업과 학업 등을, 60대 이상 고령층은 이혼, 별거, 사별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³⁾

<그림 6> 연령별 1인 가구 비중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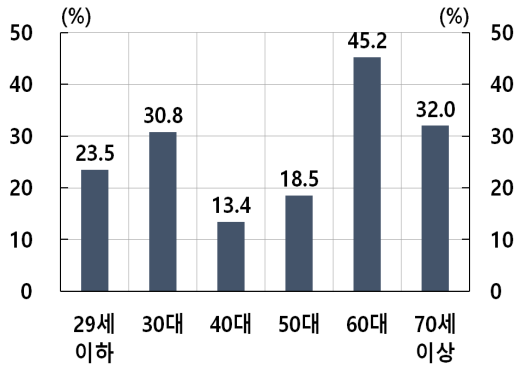
<그림 7> 연령대별 남녀 1인 가구 비중¹⁾



주: 1) 각 연령대의 남녀 비중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23년)

3) “<참고 1> 1인 가구 형성 원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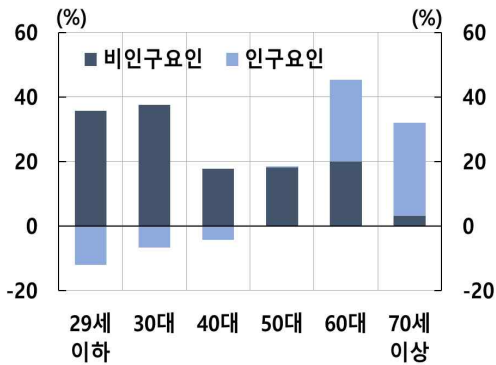
<그림 8> 팬데믹 이후 연령별 1인 가구수 증가율¹⁾



주: 1) 2019년 대비 2023년 증가율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23년)

5. 1인 가구수 증가율을 총인구 증가에 따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인구요인과 그 외 나머지 비인구요인으로 나누어 기여도 분석을 해 보면 20~30대는 비인구요인이, 60대 이상에서는 인구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청년층은 의식변화 등이, 고령층은 고령인구 증가가 1인 가구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⁴⁾

<그림 9> 1인 가구 증가 요인별 기여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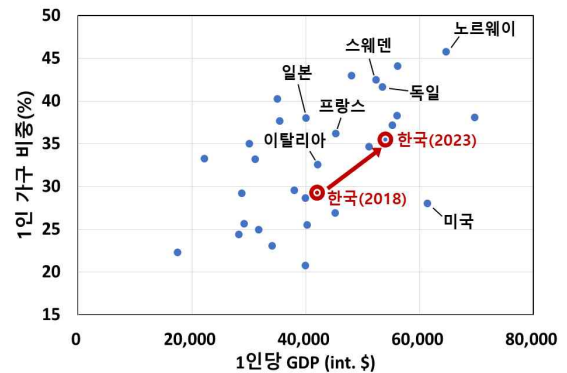


주: 1) 1인 가구수의 2019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을 연령대별 총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요인과 그 외 나머지 비인구요인으로 기여도를 분해. 자세한 내용은 후지모리 가즈히코(2018)의 방법론 참조
 자료: 저자 추정

6.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유럽 등 서구권 국가에서는 1인 가구 비중이 이미 높은 수준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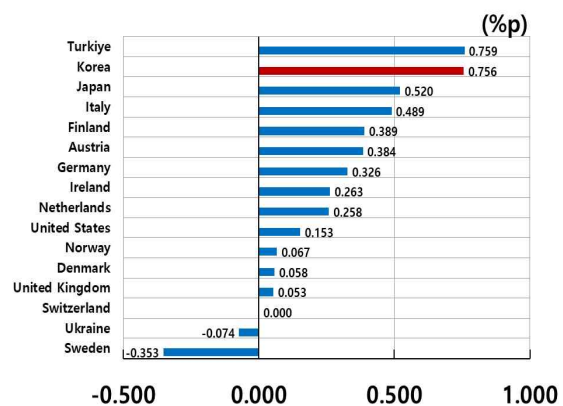
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최근 들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발전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유럽에서는 1인 가구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의 경우 40%가 넘는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나,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0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0.756%p씩 그 비중이 증가하여 주요 국가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10> 국가별 1인 가구 비중과 1인당 GDP¹⁾



주: 1) 2018년 기준(일본은 2020년 기준)
 자료: World Bank, 일본 통계청

<그림 11> 국가별 연평균 1인 가구 비중 증가속도¹⁾



주: 1)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비중 증가폭의 단순평균
 자료: UNECE, 일본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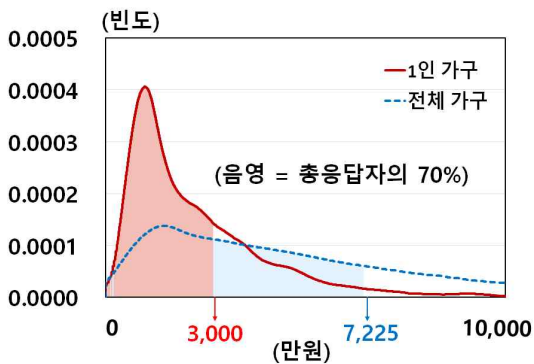
4) 평균 초혼연령(15년 32.57세 → 19년 33.37세 → 23년 33.97세), 대학졸업 소요기간(15년 4년 1.4개월 → 19년 4년 2.8개월 → 24년 4년 3.8개월), 졸업 후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15년 10.0개월 → 19년 10.8개월 → 24년 11.5개월)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60대 이상 이혼건수(남자 기준, 15년 1.16만건 → 19년 1.78만건 → 23년 1.89만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② 1인 가구의 경제적 특징

①소득, ②자산, ③고용상황 측면에서 살펴본 1인 가구의 경제 형편은 대체로 여타 가구에 비해 취약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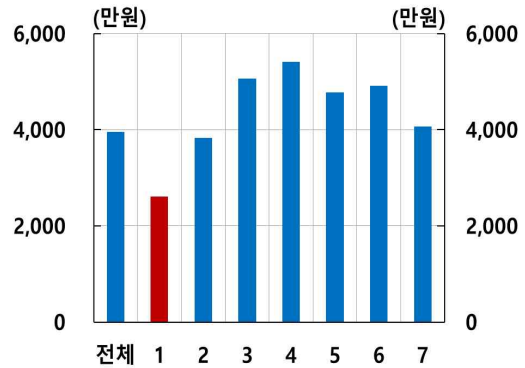
7. 1인 가구의 소득은 다인 가구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23년 중 1인 가구의 약 70%가 연소득 기준으로 3천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균등화 소득⁵⁾** 기준으로는 1인 가구(2,606만원)의 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3,950만원)에 비해 34.0% 낮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의 경우 전체 가구와 1인 가구 간 소득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30대부터는 커지기 시작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확대되었다.

<그림 12> 1인 가구 소득 분포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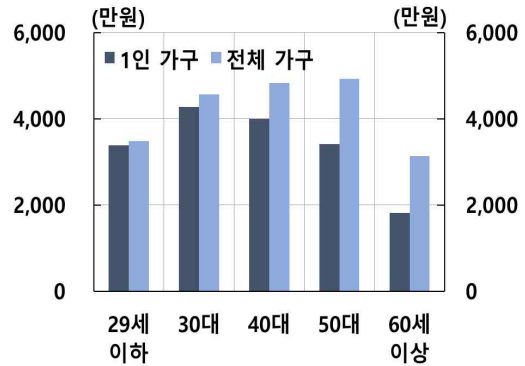
주: 1) 커널밀도함수(Kernel Density Function)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23년)

<그림 13> 가구원수별 평균 균등화 소득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23년)

<그림 14> 연령별 1인 가구 평균 균등화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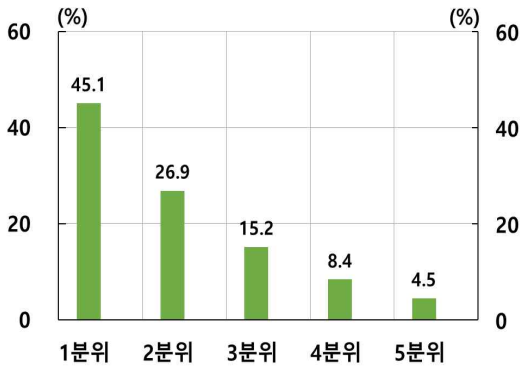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23년)

8. 1인 가구의 부채 대비 자산규모는 다인 가구의 보유규모를 상당폭 하회한다. 1인 가구 순자산은 2023년 기준 1, 2분위(전체 가구 기준 분위) 비중이 각각 45.1%, 26.9%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이 전체 가구 중 하위 50% 내에 분포하고 있다. 아울러 1인 가구의 균등화 순자산은 1.6억원으로 전체 가구 2.8억원의 59.0% 수준에 불과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에서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순자산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30대부터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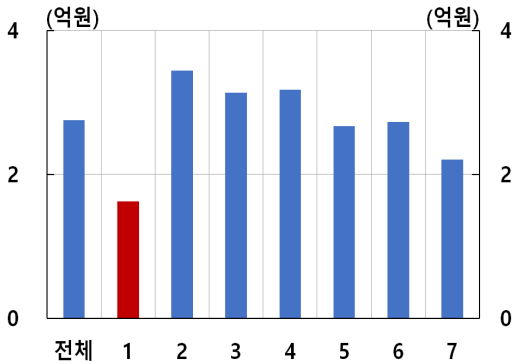
5) 가구단위로 작성한 소득통계를 개인단위 소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균등화 처리가 필요하다. 균등화 처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제3급 지수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성인 2명, 아동 2명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이 400만원이라고 하면, 이 가구의 균등화 개인소득은 200만원(=400만원/√4)이다.(통계청)

<그림 15> 1인 가구 순자산 분위별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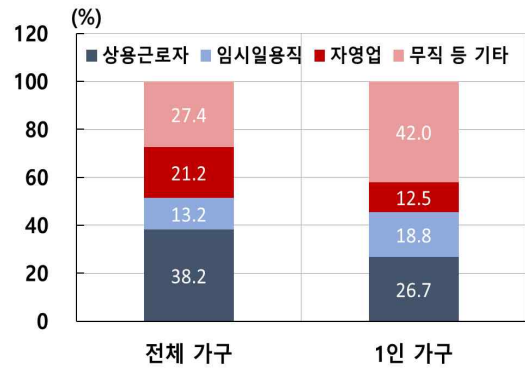


9. 1인 가구는 여타 가구에 비해 단순·임시직 일자리 비중이 높아 고용안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취업자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에서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를 큰 폭 상회하였으나, 50대 이상에서는 하회하고 있다. 30대 이하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마련을 위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⁶⁾ 다만 1인 가구는 여타 가구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아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데, 특히 고령층에서 그 정도가 심한 모습이다.

<그림 16> 가구원수별 평균 균등화 순자산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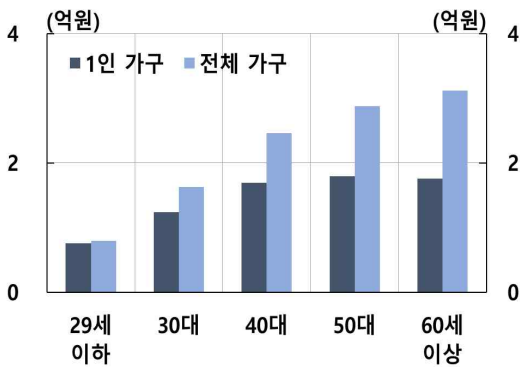


<그림 18> 1인 가구 종사상 지위별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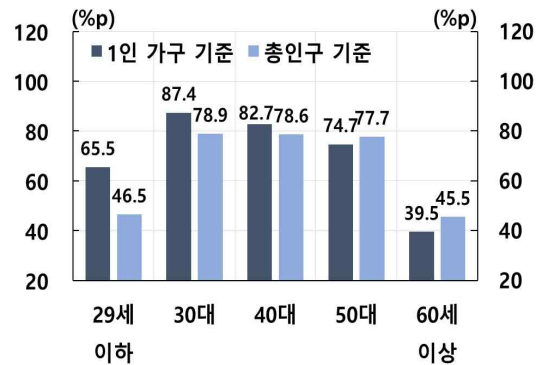
주: 1) 가구주 기준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23년)

<그림 17> 연령별 1인 가구 평균 균등화 순자산¹⁾²⁾



주: 1) 순자산은 금융자산·부채뿐 아니라 자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실물자산을, 부채의 경우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
2) 균등화 소득과 마찬가지로 균등화 순자산은 순자산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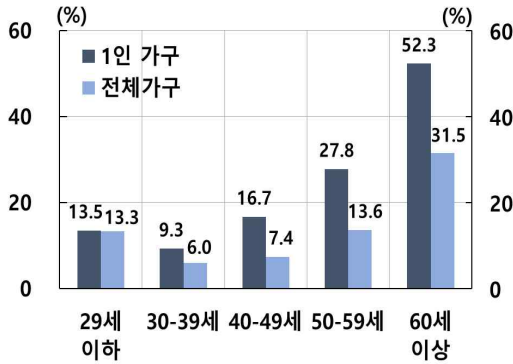
<그림 19> 연령별 1인 가구 취업자 비중



자료: 지역별고용조사(2023년)

6) 송상윤·배기원(2022) 참조. 본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노동 공급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청년층 1인 가구수 증가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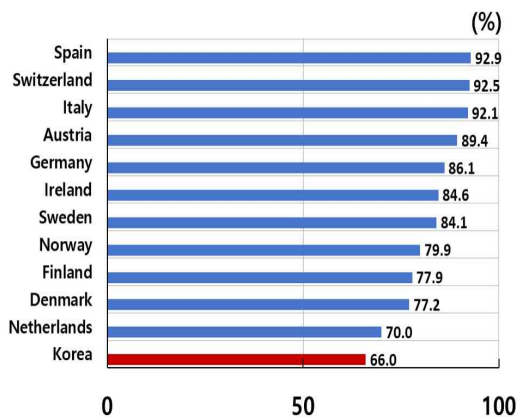
<그림 20> 연령별 1인 가구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¹⁾



주: 1) 가구주 기준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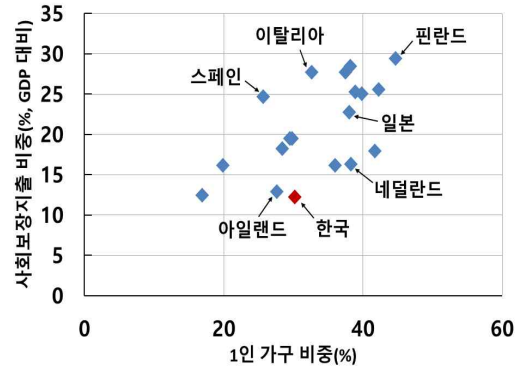
10.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1인 가구의 소득 수준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도 낮은 상황이다. 1인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에 비해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의 경우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상대적인 소득 수준을 시산해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70%대 후반 ~ 90%대 초반을 나타냈지만, 우리나라는 60%대 중반 수준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GDP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으로 판단컨대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와 비교해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 국가별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균등화 소득 수준 비교¹⁾²⁾



주: 1) 1인 가구의 평균 균등화 소득을 전체 가구의 평균 균등화 소득으로 나누어 상대적 크기를 비교
2) 한국은 2023년, 그 외 국가 2022년 기준
자료: Eurostat, 가계금융복지조사(2023년), 저자 추정

<그림 22> 주요국 1인 가구 비중 및
사회보장지출 비중¹⁾²⁾



주: 1) 2019년 기준(일본은 2020년 기준)
2) 사회보장지출은 전체 가구 대상 지출을 의미
자료: UNECE, OECD, 일본 통계청

11.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로지스틱(Logistic) 모형을 추정해본 결과 앞서 살펴본 대로 1인 가구는 소득·자산 측면에서 여타 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특정 가구의 소득이 1분위에 속하는 경우 그 가구가 1인 가구일 확률이 소득 5분위에 속하는 경우보다 52%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 3, 4분위에 속할 경우에는 각각 33%p, 20%p, 7%p 높았다. 순자산을 살펴보면 1, 2, 3분위에 속하는 가구가 1인 가구일 확률은 5분위에 속하는 가구 대비 각각 17%p, 9%p, 4%p 높았으며, 4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5분위에 속하는 가구와 확률이 비슷하였다.

1인 가구 경제적 특징 분석모형(Logit 모형)

$$\begin{aligned}
 1인가구더미_i = & \beta_{1 \sim 4} \times \text{소득더미}_i (\text{분위별}) \\
 & + \beta_{5 \sim 8} \times \text{순자산더미}_i (\text{분위별}) \\
 & + \beta_9 \times \text{임시일용직더미}_i \\
 & + \beta_{10} \times \text{나이}_i + \beta_{11} \times \text{나이}_i^2 \\
 & + \text{상수항} + \text{오차항}_i
 \end{aligned}$$

- 아래첨자 i 는 가구를 나타내며, 1인가구더미는 1인 가구일 경우 1, 나머지는 0, 소득더미는 각 소득 분위수별(5분위 기준) 더미변수, 순자산더미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의 분위수별(5분위) 더미변수, 임시일용직더미는 임시·일용직에 근무하면 1, 아니면 0, 나이는 가구주 만 나이를 의미

<표 1> 1인 가구 경제적 특징 분석모형 추정결과
(Logit 모형 추정 결과 - Average Marginal Effect)¹⁾²⁾

변수		전체	39세 이하	40-59세	60세 이상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5 분위 대비	0.52***	0.46***	0.38***	0.58***
		0.33***	0.37***	0.27***	0.35***
		0.20***	0.19***	0.18***	0.21***
		0.07***	0.04	0.06***	0.02
순자산 (1분위) 순자산 (2분위) 순자산 (3분위) 순자산 (4분위)	5 분위 대비	0.17***	0.33***	0.13***	0.18***
		0.09***	0.27***	0.08***	0.06***
		0.04***	0.13***	0.07***	0.00
		0.00	0.05	0.02	-0.03
임시일용직	0.00	-0.09***	-0.01	0.02**	
나이	-0.02***	-	-	-	
나이 ²	0.0001***	-	-	-	
Obs.		18,094	2,174	6,933	8,987
Pseudo R-squared		0.3313	0.2849	0.2683	0.3338

주: 1) ***p<0.01, **p<0.05, *p<0.1을 나타낸다.
2) 본 표 해석의 예로 가령 특정 가구의 소득이 1분위에 속하는 경우 그 가구가 1인 가구일 확률이 소득 5분위에 속하는 경우보다 52%p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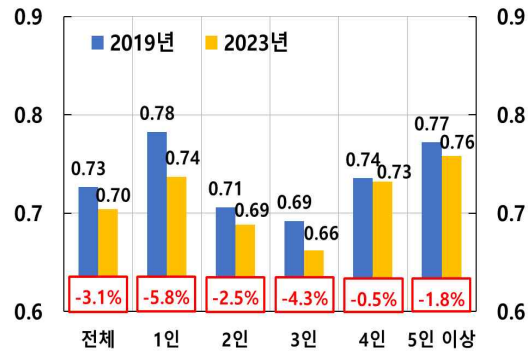
Ⅲ. 최근 1인 가구 확산이 우리 소비에 미친 영향

1) 1인 가구 소비성향 약화

12. 팬데믹 충격 이후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여타 가구보다 더 크게 약화되면서 경제 전체의 소비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에 대한 고려 없이 팬데믹 이후 평균소비지출 수준만을 보아도 1인 가구의 소비는 다인 가구에 비해 특히 부진한 모습이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인 가구의 소비행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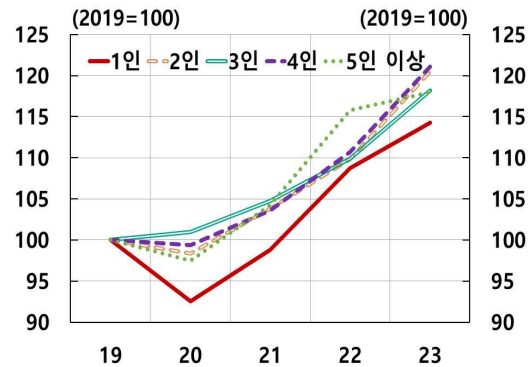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소비성향 둔화는 우리 소비의 구조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23> 팬데믹 이후 가구원수별 평균소비성향 변화¹⁾²⁾³⁾



주: 1)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
2) 연간수치는 분기별 평균소비성향의 단순평균
3) 빨간 네모는 2019년 대비 2023년 하락률
자료: 가계동향조사

<그림 24> 팬데믹 이후 가구원수별 평균소비지출 추이¹⁾



주: 1) 2019년 평균소비지출 수준을 100으로 설정
자료: 가계동향조사

13.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형태는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순자산 보유 규모, 소득 수준, 가구주 나이 효과를 통제했을 때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19년, 23년 분석에서 모두 다인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㉞

7) 서현덕(2017) 등의 방법론 참고

1인 가구 평균소비성향 분석모형

$$\begin{aligned} \text{평균소비성향}_i(\%) = & \beta_1 \times \text{1인가구더미}_i \\ & + \beta_2 \times \text{순자산}_i(\text{만원}) \\ & + \beta_{3 \sim 6} \times \text{소득더미}_i(\text{분위별}) \\ & + \beta_7 \times \text{나이}_i \\ & + \text{상수항} \\ & + \text{오차항}_i \end{aligned}$$

- 아래첨자 i 는 가구를 나타내며,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1인가구 더미는 1인 가구일 경우 1, 나머지는 0,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만원), 소득더미는 각 소득 분위수별(5분위 기준) 더미변수⁹⁾, 나이는 가구주 만 나이를 의미

<표 2> 1인 가구 평균소비성향 분석모형 추정결과¹⁾²⁾

변수	2019	2023
1인가구더미	-16.5353***	-9.1399***
순자산(만원)	0.0001***	0.0001***
소득 (1분위)	78.5846***	52.8064***
소득 (2분위)	45.3512***	32.8159***
소득 (3분위)	26.9862***	21.0979***
소득 (4분위)	14.0351***	12.5589***
나 이	-0.7159***	-0.0014
상수항	76.2039***	41.3152***
Obs.	18,036	17,733
R-squared	0.2398	0.1800

- 주: 1) ***p<0.01, **p<0.05, *p<0.1을 나타낸다.
2) 본 표 해석의 예로 가령 2023년 순자산이 0원, 소득이 1분위, 가구주 나이가 0살인 가구를 가정하면 1인 가구일 경우 가처분소득의 94.1%를 소비하나, 1인 가구는 85.0% 만을 소비

자료: 저자 추정

14. 위의 실증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2023년 1인 및 다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을 2019년과 비교한 결과 팬데믹 충격 이후 1인 가구의 평

균소비성향이 다인 가구보다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19년 및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1인 및 다인 가구의 소득, 자산, 가구주 나이 측면에서 대표 가구(중위값 기준)를 설정하였다. 상기 분석에서 도출한 계수 값(<표 2>)을 이용하여 대표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의 변화 정도를 시산해보면 2019~23년 중 평균소비성향이 1인 가구는 7.6% 하락하였으나, 다인 가구는 3.8%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가계동향조사 통계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하다.

<표 3> 대표가구 특징¹⁾

	순자산	소득	가구주 나이	
2019	1인 가구	5,100만원	1분위	65세
	다인 가구	24,114만원	3분위	55세
2023	1인 가구	6,385만원	1분위	64세
	다인 가구	30,918만원	3분위	57세

주: 1) 중위값 기준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9, 23년)

<그림 25> 팬데믹 이후 대표가구 평균소비성향 변화¹⁾



주: 1) <표 2>와 <표 3>을 이용하여 계산
자료: 저자 추정

8) 일반적으로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보유 규모가 낮아 소비성향이 다인 가구에 비해 높다. 본문의 실증분석에서는 소득과 자산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기 때문에 동 효과가 통제되었으며, 결국 1인 가구 더미변수의 계수값은 1인 가구 여부의 평균소비성향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만을 의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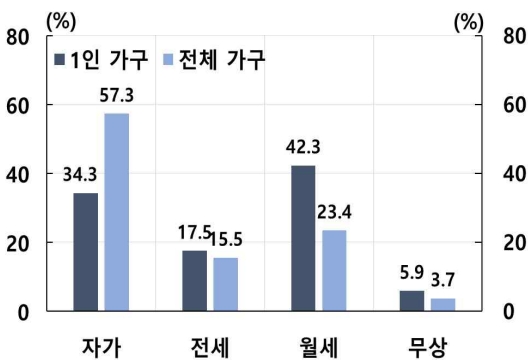
9) 순자산 수준을 설명변수로 이용한 것과는 달리 소득변수는 분위별 더미변수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종속변수인 평균 소비성향 계산 시 소득 수준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② 1인 가구 소비성향 약화 원인

1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 약화는 이들의 소득·자산 등 경제 형편이 취약한 상황에서 팬데믹 기간 중 ①주거비 상승, ②생활비 부담 증가, ③임시·일용직 중심 고용 충격, ④위기에 따른 소득 충격 등의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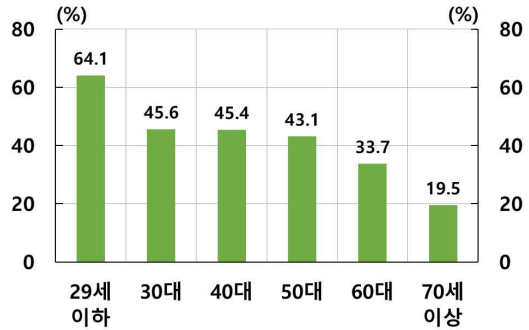
15.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팬데믹 이후 지속된 월세 비용 증가 등이 이들 가구의 소비성향을 제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1인 가구 중 월세 비중은 42.3%로 전체 가구의 약 2배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히 29세 이하 1인 가구의 월세 비중이 64.1%로 가장 높았으며, 30~50대도 4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중¹⁰⁾이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월세 가격이 그간 하락 추세를 보이다 팬데믹 이후 큰 폭으로 상승 전환함에 따라 1인 가구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¹¹⁾

<그림 26> 1인 가구 주택 점유형태 비중¹⁾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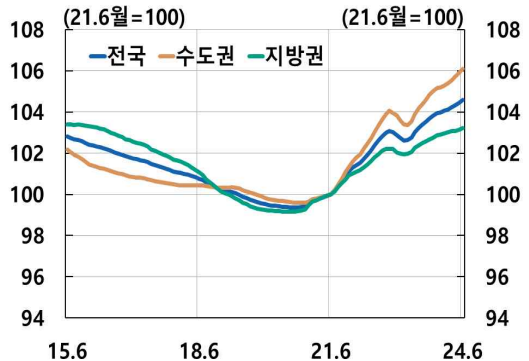
주: 1) 2020년 기준
2) 월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를 포함
3) 무상은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를 의미
자료: 통계청(2022)

<그림 27> 연령별 1인 가구 월세 비중¹⁾²⁾



주: 1) 2020년 기준
2) 월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를 포함
자료: 통계청(2022)

<그림 28> 월세가격지수¹⁾



주: 1)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모두 포함
자료: 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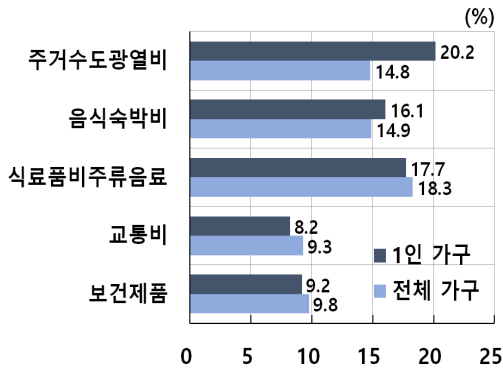
16. 1인 가구의 경우 생활비 지출 비중이 높은데 팬데믹 이후 생활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높은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 이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가구원수별 소비 지출 품목을 보면 1인 가구는 주거·에너지(수도·광열)·음식숙박비·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다시 살펴보면 전 연령에서 주거·에너지 등의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외식 소비가 많은 20~30대는 음식서비스 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며, 60대

10)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의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이 3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박미선·우지윤(2021)이 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가구 중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중은 26.7%이나 1인 가구 기준으로는 30.8%로 나타났다.

11) 임대료 상승은 임차인 소비에는 부정적이나 임대인 소비에 긍정적임에 따라 그 효과가 상쇄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선행연구(김정성·이영호, 2015; 김영태·이관교·박진호, 2011 등)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 상승은 가계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비성향이 다른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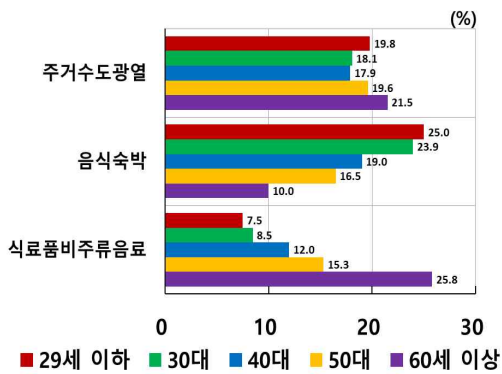
이상 고령층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소비패턴하에서 팬데믹 이후 주거비 상승에 더해 식품(식료품·외식비 포함), 전기료, 도시가스 등 생활물가가 급증한 것은 1인 가구의 소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 변화 등으로 에너지·식품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진 것은 1인 가구의 소비를 제약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¹²⁾

<그림 29> 1인 가구 소비지출 품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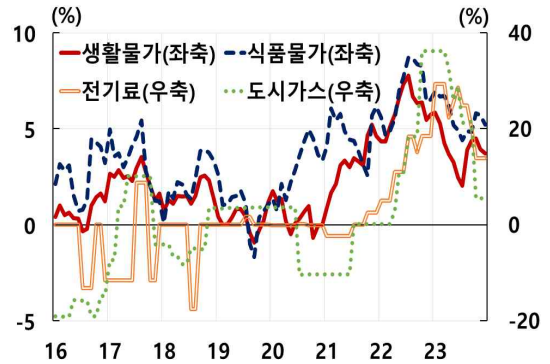
자료: 가계동향조사(2023년)

<그림 30> 연령별 1인 가구 소비지출 품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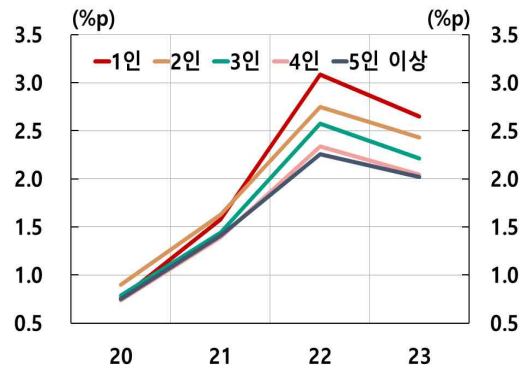
자료: 가계동향조사(2023년)

<그림 31> 생활물가 상승률¹⁾



주: 1) 식품 물가는 식료품, 외식비 등을 포함
자료: 소비자물가조사

<그림 32> 가구원수별 물가상승률의 주거·에너지·식료품·음식서비스 기여도¹⁾



주: 1) 품목별 물가상승률에 지출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
자료: 저자 추정

<그림 33> 생활물가 상승률 변동성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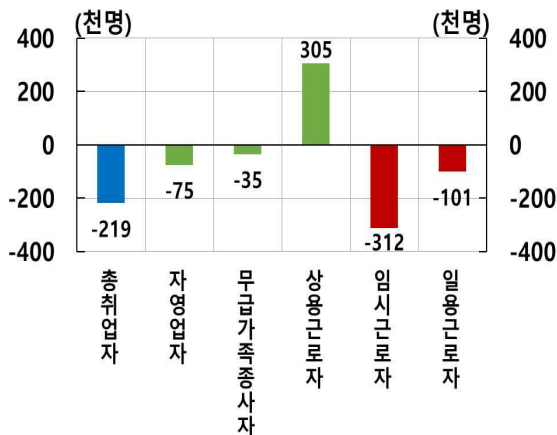


주: 1) 24개월 이동 표준편차
자료: 저자 추정

12) Ha and So(2024) 참조. 본 자료에서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실물 경제, 특히 투자 및 내구재 소비 둔화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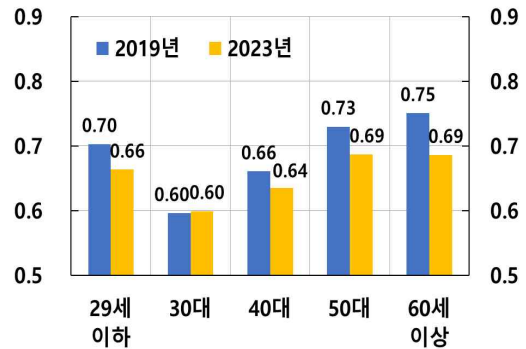
17. 1인 가구는 고용 안정성이 낮아 팬데믹 위기 경험에 따른 상흔 효과(scarring effect)가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¹³⁾ 기존 연구(Malmendier and Shen, 2024; 최영준, 2024 등)에 따르면 직접적인 실업 또는 고실업률 시기 경험이 소비지출을 장기간 제약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팬데믹 이후 임시·일용직에서 취업자수 감소가 크게 나타났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1인 가구는 여타 가구에 비해 임시·일용직 종사자가 많아 팬데믹에 따른 고용 충격도 더 크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2019년에 비해 2020년 중 하락하였는데, 그 폭은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50대 이상 그룹에서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팬데믹 충격 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증감¹⁾



주: 1) 2019년 대비 2020년 증감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5> 연령별 1인 가구 평균소비성향 변화¹⁾



주: 1)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18.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적 특징에서 야기되는 문제 외에도 1인 가구는 가구원 간 리스크 분담(risk sharing)이 어려워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인 가구의 경우 단기적인 소득 충격에 가구원들의 공동 대응이 가능하지만 1인 가구는 혼자서 이를 감당해야 하므로 같은 크기의 충격이라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비를 더 많이 줄일 여지가 있다.¹⁴⁾

IV. 종합평가 및 시사점

19. 1인 가구 소비성향 약화의 주요 원인을 고려할 때 내수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 가구의 주거·소득·고용 안정성이 필요하다.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는 사회·문화적 원인에 기인한 구조적 변화로 보이는데,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이 소비 등 내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 1인 가구는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며, 고령층 1인 가구는 소득·고용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

13) Malmendier and Shen(2024)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실업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를 경험한 개인은 상당기간 소비를 줄이고 부를 더 많이 쌓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4) 김대일·이석배·황윤재(2014), Asdrubali et al.(2020), Cochrane(1991) 등. 김대일·이석배·황윤재(2014)는 많은 가구원이 소득을 한데 모아 공유하는 양상이 소득불평등도 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Asdrubali et al.(2020)은 가구주 소득에 대한 충격의 85%가 평탄화(smoothing)되는데 약 40% 정도가 개인의 저축을 통해서, 그리고 16%가 가구원 간 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다만 1인 가구만을 위한 지원은 저출생 정책과의 상충 등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영국 등 해외사례처럼 전체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정책 틀 안에서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균형감있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¹⁵⁾¹⁶⁾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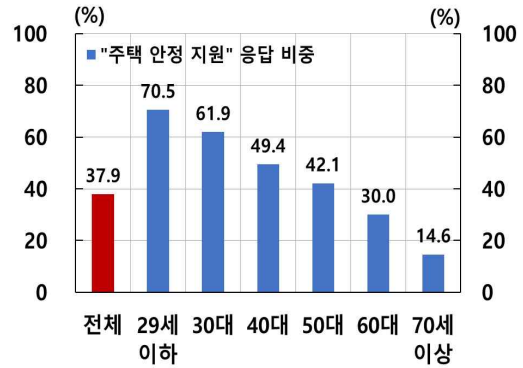
<표 4> 청년층 및 고령층 1인 가구 경제적 특징 (전체 가구 대비)¹⁾

	금융		고용		주거
	소득	순자산	취업 비중	임시직 비중	월세 비중
청년층 (20~30대)	조금 낮음	조금 낮음	높음	조금 높음	매우 높음
고령층 (60대 이상)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낮음	매우 높음	낮음

주: 1) 붉은색 음영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부분

20. 높은 주거비 부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1인 가구 확산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¹⁷⁾ 특히, 청년층 1인 가구는 월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서 20~30대 응답자의 60~70%가 1인 가구 정책 중 주거안정 지원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6> 1인 가구 필요 지원정책¹⁾



주: 1) 1인 가구 지원정책들을 보기로 제시하고 응답자가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선택
자료: 가족실태조사(2023년)

<그림 37> 청년층 응답 가장 필요 주거정책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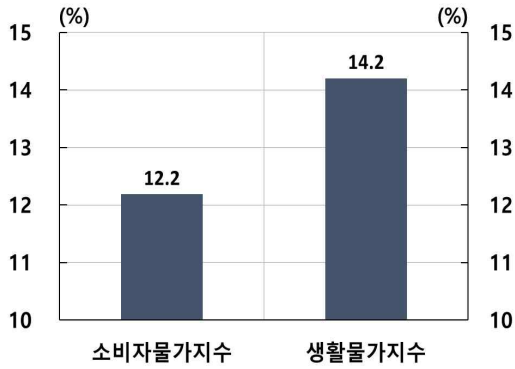


주: 1) 19-34세 기준
2) 주거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한 비중
자료: 청년 삶 실태조사(2022년)

21. 1인 가구는 생활비 지출 비중이 큰 만큼 생활물가 안정이 긴요하며, 이들 가구의 취약한 소득·고용 문제 해결에도 정책적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 팬데믹 이후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된 것은 1인 가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1인 가구의 빈곤율¹⁸⁾은 전체 가구를 큰 폭 상회하는 가운데 특히 고령층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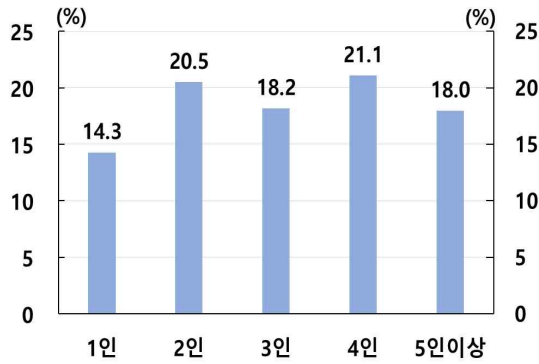
15) 해외국가들의 1인 가구 지원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참고 2> 주요국 1인 가구 확산과 정책 대응”을 참조
16)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시 비용/편익 분석을 철저히 하여 비용 대비 달성하고자 하는 편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7) 1인 가구 확산의 주택시장 영향 및 정책 방향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후속 연구에 포함될 예정이다.
18) 빈곤율은 중위소득(가처분소득 기준)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38> 팬데믹 이후 생활물가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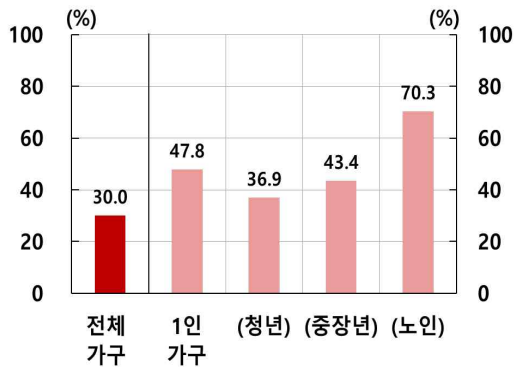
주: 1) 2019년 대비 2023년 증가율
자료: 소비자물가조사

**<그림 39> 팬데믹 이후 가구원수별
평균소비지출 증가율¹⁾**



주: 1) 2019년 대비 2023년 증가율
자료: 가계동향조사

<그림 40> 1인 가구 빈곤율¹⁾²⁾



주: 1) 2020년 가처분소득 기준
2) 사적 이전소득이 제외되어 있어 통계청 기준에 비해 빈곤율 수치가 다소 높음
자료: 보건복지부(2023.11월)

참고 1 1인 가구 형성 원인

설문조사 결과 1인 가구가 된 이유로 40대 이하에서는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혼자 살고 싶어서”가 따랐으며, 50~60대의 경우 “본인의 이혼으로”, 70세 이상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가 가장 많았다.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본인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24.4	33.7	16.1	68.1	70.0	58.5	30.9	13.5	4.3	0.8
배우자의 사망으로	23.4	8.3	36.8	0.0	0.0	0.5	0.6	7.1	25.2	65.1
혼자 살고 싶어서	16.2	19.2	13.6	22.5	19.9	25.8	29.8	16.4	9.3	8.6
본인의 이혼으로	15.6	20.0	11.8	0.0	0.5	1.8	17.1	35.0	31.0	8.0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4.9	3.4	6.4	0.0	1.1	0.8	1.8	6.7	9.7	6.1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4.1	4.5	3.8	3.3	5.0	3.9	6.3	4.0	3.6	3.3
부모나 자녀의 사망으로	4.0	5.4	2.7	0.0	1.2	3.1	8.5	6.1	5.3	2.0
배우자의 학업이나 직장(취업)으로	1.8	1.0	2.5	0.0	0.3	0.6	2.7	3.5	3.9	0.4
부모의 직장(취업)으로	0.4	0.4	0.5	0.0	0.6	1.8	0.7	0.2	0.0	0.0
부모의 이혼으로	0.3	0.6	0.0	6.1	0.1	1.1	0.6	0.0	0.0	0.1
기타	4.8	3.6	5.8	0.0	1.4	2.1	1.1	7.6	7.8	5.8

자료: 여성가족부(2021)

참고 2 주요국 1인 가구 확산과 정책 대응

독일, 프랑스 등은 1인 가구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들 가구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구분	1인 가구 규모	주요 정책
미국	28.4% (2019년)	▶ 1인 가구 관련 미 정부의 별도 정책은 없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
영국	29% (2019년)	▶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여 대응하지 않음 ▶ 기존 사회보장 및 안전망 제도(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보호주택 등)를 통해 보호 ▶ 최근 “외로움(loneliness) 대응전략” 마련하여 추진 - 이혼, 사별, 실직 등에 대응하여 2천만 파운드 규모 기금 조성, 사회적 안전망과 연대성 제고 정책 마련
일본	27.7% (2018년)	▶ 1인 가구에 특화된 종합대책은 없음 ▶ 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간접적으로 포함된 고령화 대책 추진
프랑스	36% (2016년)	▶ 1인 가구에 한정된 별도의 정책은 찾기 어려우나, 1인 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기준은 존재 ▶ 미망인 수당, 활동연대수당, 주택보조수당, 노인연대수당, 사회적 지원수당, 청년연대수당 등 지원
독일	41.9% (2018년)	▶ 1인 가구 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단은 찾기 어려움 ▶ 다만, 1인 가구가 저소득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거, 복지, 의료 등 취약계층 정책으로 지원
러시아	25.7% (2010년)	▶ 1인 가구 관련 별도의 대책 부재
홍콩	18% (2016년)	▶ 1인 가구만을 위한 별도 대책은 없으며, 주로 취약계층 대상 복지정책 추진 중

자료: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2020)

참고문헌

- 김대일·이석배·황윤재, 2014. "가구구성과 소득불평등," 노동경제논집, 제37권 제3호, pp. 1-44.
- 김영태·이관교·박진호, 2011. "전월세가격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11년 2월호, pp. 25-51.
- 김정성·이영호, 2015. "주택시장의 월세주거비 상승이 소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15년 5월호, pp. 17-38.
- 박미선·우지윤, 2021.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국토연구원, WP 21-01.
- 박민진·김성아, 2022.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4호, pp. 127-141.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0.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I)."
- 서울연구원, 2022.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 서현덕, 2017. "최근 국내 가계 평균소비성향 감소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 제35권 제3호, pp. 75-105.
- 송상윤·배기원, 2022.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제2022-35호.
- 여성가족부, 2024. "2023년 가족실태조사 주요 결과."
- 여성가족부, 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 조태형, 2023.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BOK 경제연구, 제2023-25호.
- 최영준, 2024. "실업경험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장기효과 분석," BOK 경제연구, 제2024-5호.
- 통계청, 2023.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통계청, 2022.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 후지모리 가츠히코, 2018. "1인 가구 사회: 일본의 충격과 대응," 김수홍(역), 나남출판사.
- Asdrubali, Pierfederico, Simone Tedeschi, and Luigi Ventura, 2020. "Household risk-sharing channels," Quantitative Economics, Econometric Society, 11(3), pp. 1109-1142.

Cochrane, John H., 1991. "A simple test of consumption insur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5), pp. 957-976.

Malmendier, Ulrike, and Leslie Sheng Shen, 2024. "Scarred Consumpt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16(1), pp. 322-377.

Ha, Jongrim, and Inhwan So, 2024. "The Economic Effects of Global Inflation Uncertainty,"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Banking*, 20(2), pp. 69-150.

Copyright ©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 2024-31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475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